

국별 리포트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 Km ²	G D P	5,403억 달러 (2009년)
인구	230.0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2,349달러 (2009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10,390 (2009년 말)

- 인도네시아는 17,50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2억 4,02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낮은 수출비중,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유도요노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용 등에 힘입어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음.
-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PD)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동년 7월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유도요노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연립정당들의 반대, 천연자원 외에 뚜렷한 수출기반 부족, 열악한 인프라, 투자 관련법 개정 지연 및 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 부정부패 만연 등이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5.5	6.3	6.1	4.6	5.9
재정수지 / GDP	-1.0	-0.7	-0.6	-1.6	-1.5
소비자물가상승률	13.1	6.3	9.9	4.8	5.3

자료: IMF, EIU.

□ 민간 소비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의존도로 대외 충격을 덜 받아 6.1%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음.
- 2009년에는 빈곤층 앞 현금 지급 및 공무원 급여 인상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와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며, 동년 4월 총선 및 7월 대선 실시와 관련한 정부지출 증가로 당초 연초의 전망치보다 높은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상반기 중에는 고용시장 개선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와 2009년 상반기부터 지연되었던 고정자산 투자 재개에 따른 투자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중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상승세로 전환

- 유가 안정 및 루피아화 강세 등으로 안정되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 및 유가 급등과 더불어 국내 수요 급증으로 9.9%로 다시 상승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과 루피아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최근 9년 중 가장 낮은 4.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10년 7월 초 단행된 전기세 15% 인상과 주요 식료품인 쌀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월 중 전년동월 대비 6.2%를 기록한 이후 8월 중 2009년 4월 이후 최대치인 6.4%를 기록하였으며, 라마단 기간 금식 이후 소비 증가로 추가적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함.
- 이에 따라 2010년 중에는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과 강한 경기 상승세에 따른 내수 확대로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0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기준금리는 6.5%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BI가 2010년 9월 지급준비율을 5%에서 8%로 인상하였으며, 향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 중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정부예산 집행 지연으로 재정수지는 소폭의 적자 유지

- 인도네시아는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4년 이후 GDP의 1% 내외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2008년에는 국제 유가 하락 및 유류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로 GDP 대비 0.6%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으로 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편성한 71조 3,000억 루피아(약 72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행정적인 절차 지연으로 배정 예산의 37%만 지출되어 재정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낮은 1.6%를 기록하였음.
- 2010년 5월 중 인도네시아 국회는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자 2010년 중 유류 보조금을 전년대비 35% 인상하여 143조 8,000억 루피아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빈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진피해 복구 사업 등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였음.
-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중 행정적인 지연으로 배정된 예산의 35% 정도만이 집행되어 동기간 46조 루피아 재정수지흑자(GDP 대비 0.7%)를 기록하여, 2010년 중에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수지적자 목표치인 2.1%보다 낮은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외국인투자 의존도

-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정치적 혹은 사회적 불안정한 사태 발생시 외국인투자 감소로 경제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님.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력, 도로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였으며, 열악한 인프라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기 공급률이 전체 가구의 55% 수준으로 낮으며, 전력 생산의 효율성 및 송배전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낮음.
 -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도로운송시간이 지연되는 등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음.

□ 지역간 경제발전 불균형

- 풍부한 천연자원, 관광자원 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경제 발전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상존함.

□ 관료주의 행정 및 부정부패의 만연

- 유도유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개혁 추진 등으로 행정절차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2010년도 정부 예산 집행도 복잡한 행정업무 및 만연된 부정부패 등으로 지연되는 등 여전히 관료주의 행정과 자의적인 법해석 및 편법의 성행 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구재 소비 증가

- 2억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높은 소비시장 성장 잠재력을 지님.

- 최근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의 현대식 시장 규모가 2004~2008년 동안 19.8% 성장하였으며, 고소득층 규모 증가로 2009년 고급 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억 2,997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인구의 66.7%가 15~65세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0~14세가 전체 인구의 28.3%를 차지하여 향후 20~30년간에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풍부한 보유 자원 및 개발투자 부족에 따른 재투자

-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세계 2대 LNG 수출국이나, 생산광구에 대한 재투자 부족으로 최근 5년 이상 원유 생산량이 OPEC 쿼터를 밑돌았으며,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자 2008년 9월 인도네시아는 OPEC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석유 잔여 확인매장량은 2009년 말 기준 약 44억 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약 0.3%)임.

* 석유 매장량 비교(2009년 말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2,646억 배럴, 인도 58억 배럴, 말레이시아 55억 배럴, 베트남 45억 배럴 등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탐사 및 정유 방식 도입, 적합한 보조금 정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투자 증가와 자원개발 활성화가 기대됨.

다. 정책성과

□ 유도요노 정부의 안정적 경제정책 운용

-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도요노 정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 유도유노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개혁 추진

- 2004년 10월 유도유노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 철폐와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프라 서밋 개최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2004년 19억 달러에서 2008년 9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4월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내외국인 동등 취급, 토지 이용기간 연장, 투자절차 진행기간 단축, 투자 인센티브 마련, 외국인투자자 체류허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통합하는 신투자법을 마련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10,860	10,493	126	10,746	10,789
경 상 수 지 / GDP	3.0	2.4	0.0	2.0	1.6
상 품 수 지	29,660	32,754	22,916	35,133	37,097
수 출	103,528	118,014	139,606	119,480	145,004
수 입	73,868	85,260	116,690	84,347	107,907
외 환 보 유 액	41,103	54,976	49,597	63,563	76,060
총 외 채 잔 액	132,512	142,601	149,871	172,971	187,871
총외채잔액/GDP	36.4	32.7	29.3	32.1	27.3
D. S. R.	23.1	13.6	12.3	16.0	14.3

자료: IFS, EIU, GDF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2008년에는 상반기 중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도 328억 달러에서 229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및 배당 송금과 외채이자 상환 등으로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흑자가 전년도 105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 및 투자 감소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흑자가 전년대비 53.3% 증가한 35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는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감소로 GDP의 2% 규모인 10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국제상품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로 2010년 1사분기 84억 달러, 2사분기 90억 달러 등 상품수지 흑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상수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 증가에 따른 해외 과실송금 증가로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

- 2010년 상반기 중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증가로 76억 달러의 자본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국제수지 흑자폭 확대에 따라 외환보유액 또한 2분기말 기준 734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외환보유액 규모: 550억 달러(2007년)→496억 달러(2008년)→636억 달러(2009년) →734억 달러(2010. 6월)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9년 4월 총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Democrat Party: PD)이 26%의 득표율로 최다 의석을 확보한데 이어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6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승리함에 따라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0년 9월 군대내 개혁을 위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육군이 아닌 해군의 아구스 수하르토노(Agus Suhartono) 제독을 새로운 군 최고사령관으로 지명하는 등 정치 개혁을 지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연립정당들과의 갈등이 개혁 노력의 걸림돌로 작용

-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2009년 총선에서 6개 정당들의 지지로 총 75%의 국회의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타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최대 야당인 골카르(Golkar)당이 유도요노 1기 정부의 집권 기간 중에도 부정부패 척결 등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해 걸림돌이 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여타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도요노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연정의 주요 당인 골카르와 PKS당에 의해 제기된 센츄리은행 구제금융과 관련한 스캔들로 개혁추진의 핵심 인물인 물라니(Sri Mulyani) 재무장관이 교체되는 등 연정내 갈등이 여전히 개혁 노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바크리 골카르당 당수와 정적이었던 물라니 재무장관의 사임으로 연정내 주요 갈등 요소가 해소되어 당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신임 재무장관인 마루토와르도조(Martowardoyo)를 포함한 유도요노 정부핵심인물들의 개혁 추진 의지로 향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2. 사회안정

□ 유도요노 정부의 재집권 이후 사회 안정 유지

- 유도요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인도네시아의 여론 조사전문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기세 인상과 정부가 제공한 LPG가스통의 잇따른 폭발 사고 등으로 2009년 7월 대선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집권 후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이슬람 세력의 폭탄테러 등 사회 불안 요소 잠재

- 인도네시아 경찰은 2002년 및 2005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 알려진 과격회교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ah: JI)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2009년 7월 제마 이슬라미야의 한 분파가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2건의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로 이슬람세력 등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었음.
- 그 이후 추가적인 테러 등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0년 11월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추가적인 폭탄테러의 위협 등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잠재함.

3. 국제관계

□ 국제사회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 인도네시아는 2006~08년 동안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고, 세계 최대 경제국들의 모임인 G20 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내 활동에 적극적임.

□ 주변국과 간헐적인 분쟁 발생

- 인도네시아 어민들의 호주 영해 내 불법 어업, 파푸아(Papua) 독립에 대한 호주의 지지 등의 문제로 호주와 간헐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왔음.
- 유도요노 대통령2기 정부 출범 이후 개선 조짐을 보이던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는 2010년 8월 중 양국간 분쟁수역인 리아우(Riau) 제도 내에서 말레이시아 해군군경의 인도네시아 어선 나포로 다소 악화되었음.
 - 말레이시아와는 그동안 서부 보르네오 해안 앞바다에 위치한 석유가 풍부한 암발라트(Ambalat) 지역에 대한 소유권 분쟁, 저임금을 받는 많은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말레이시아 고용주들의 부당대우 등의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었음.
- 싱가포르와도 과거부터 인도네시아의 대 싱가포르 모래 수출 금지와 인도네시아 해군의 싱가포르 선적 나포 사건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옴.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

- 인도네시아는 파리클럽과 2002년 4월 54억 달러, 런던클럽과는 동년 9월 13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합의하였고, 2005년에는 쓰나미 피해로 인해 파리클럽 채권국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외채원금 26억 달러에 대해 상환을 유예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201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여 현재는 잔액이 없으며, 여타 채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등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를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0.10)	C1 (2010. 3)
OECD	4등급 (2010. 4)	5등급 (2009. 4)
S&P	BB (2010. 3)	BB- (2009.10)
Moody's	Ba2 (2010. 6)	Ba2 (2009. 9)
Fitch	BB+ (2010. 1)	BB (2008. 2)

- Moody's는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제의 비교적 빠른 회복세, 중기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정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경제정책 및 외채관리 등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2009년 9월 기준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경제성장세 유지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높은 평가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함.
- 2010년 1월 Fitch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상대적인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준 점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10년 3월 S&P도 정부의 채무비율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인도네시아 변동성의 감소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10년 4월 OECD는 국제적인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2009년중 안정적 경제성장을 시현한 점과 2009년중 유도요노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후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국가위험도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중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s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및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분야협력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항공협정(1989년), 문화협력협정(2000년), 범죄인인도조약(2000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5,771	7,934	6,000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 입	9,114	11,320	9,264	천연가스, 석탄, 원유
합 계	14,885	19,254	15,26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1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등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149억 달러, 2008년 193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153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제8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대 인니 해외투자는 2010년 6월말 현재 신규법인 1,308건, 총 38억 1,600만 달러 투자금액(누계기준)을 기록함.

VI. 종합 의견

- 인도네시아는 총선 및 대선 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와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와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4.6%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소비 수요 및 투자 확대에 힘입어 5.9%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 루피아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으로 안정되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전년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지는 정부예산 집행 지연으로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단기적으로 대외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2009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PD)이 최다 의석을 차지한 데 이어, 동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60.8%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재집권 후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총 외채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나 경제상황 호전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하는 등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를 보이고 있음.

조사역 이진경 (☎02-3779-6686)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